

재일한인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윤 일 성**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 II. '재일(在日)'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 V.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대한 경험적 논의 |
| III. '재일(在日)'의 의미: 운전차의 논의를 중심으로 | VI. 맺으면서 |

I. 머리말

재일한인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이 글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재일한인을 지칭하는 몇 가지 호칭들을 탐구한다. 재일한인을 논할 때 여러 가지 호칭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여겨지는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그리고 '재일코리안' 등 세 가지 이름을 중심으로 이름불이기에 내재해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들을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5-A00007)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고찰한다. 둘째, 유건차의 논의를 중심으로 '재일(在日)'의 의미를 파악한다. '재일'이란 무엇이며, '재일'의 정체성이 세대교체와 함께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재일'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룬다. 셋째, '재일'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재일한인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재일한인들의 분화된 정체성을 '공생지향', '조국지향', '개인지향', 그리고 '귀화지향'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특성을 파악한다.

이 글은 위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재일한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경험적 논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2003년 1월 중순부터 약 한달 동안 일본 오사카와 코베에 거주하는 재일한인들에 대하여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오사카시립대학과 코베여자대학의 석박사과정에 있는 한국유학생들이 조사원으로 활동했으며, 133명의 재일한인들이 사회조사에 응했다.

II. '재일(在日)'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유키사다 이사오(行定 勳)의 영화 『GO』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한 구절을 자막으로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이름이란 뭐지? 장미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름다운 향기는 그대로인 걸”. 젊은 재일한인의 일상적 삶을 억누르는 여러 가지 억압적 기제들을 고발하는 이 영화가 존재 자체와 이름 붙이기와의 관계에 관한 셰익스피어의 성찰을 영화의 도입부에 내세운 것은 의미가 있다. 과연 이름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존재를 규정한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을까? 그냥 일본에 사는 젊은이를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제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등으로 이름 붙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화 『GO』의 주인공 이정호는 되내인다. 이름 붙이기에 수반되는 온갖 정치적, 사회적 의미들을. 더 중요한 것은 장미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겠는가? 도대체 장미의 아름다운 향기는 어디로 가고, 정치적, 사회적 의미 붙이기만 난무하던 말인가?

민족 조국 국가 단일 애국 통일 동포 친선 지켜워.
지배 억압 예측 침략 편견 차별 세기랄.
배타 배척 선민 혼혈 순수 혈통 단결.

.....
난 일본에서 태어났다.
난 일본에서 태어났다.
난 일본인과 다를 바 없는데
남들은 그렇게 부른다.
재일외국인.

.....
뚜껑 열렸다. (영화 『GO』에서, 이정호의 독백)

이름 붙이기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론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만 그 이외에도 존재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규정하려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혹은 조선인들에 대한 이름 붙이기는 특히 그러하다.
이름 붙이는 행위는 정치적이다. 어떤 이름을 사용하느냐는 것은 이름 붙이는
자의 정치적 가치판단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한다. 宮內 洋에 따르면, “의도
적, 비의도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몇 개의 <호칭> 중에서 어느 하나의 <호칭>
을 택하는 행위 그 자체가, 극히 「정치적인 행위」(하지만 어떤 다양한 결단
을 동반함)이다. ... 결국, 몇 개인가의 후보에서 어떠한 <호칭>을 사용할 것인
가 하는 문제와, 사용자의 정치성의 문제로서 정리될 수 있다. ... 그 <호칭>의
사용자가 가진 사회인식과, 사용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관계를 읽어낼 수
있는 것도 그다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宮內 洋, 1999:14).

이름 붙이기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에 피로워하는 영화 『GO』의 주인공 이
정호는 여자친구인 일본인 사쿠라이 츠바키에게 외친다. 왜 이 사회는 나를 그
렇게 이름 붙이느냐고. 왜 나는 내가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인 의미가 잔뜩 붙
여진 이름으로 살아야 하냐고.

- 난 어디 사람이지? 난 어디 사람이지? 누구냐고? 대답해. 난 누구지?
(이정호)
- 재일한국인 (사쿠라이 츠바키)
-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재일' 소리를 하지? 그 뜻은 인젠가 이 나라를
떠날 사람, 즉 외지인이란 뜻이지. 알기나 해? 난 너희 일본놈들 죄나

죽여버리고 싶어. 우리가 두렵지? 이름 붙여 차별하지 않으면 불안해 미쳤겠지? 좋다. 내가 사자라면, 사자는 자신을 사자라고 안 불러. 너희가 멋대로 붙인 이름이잖아. 오기만 해 봐. 동맥을 콧 물어뜯어 죽일 거야. 맘대로 불러 봐! 살모사, 전갈, 외계인 다 좋아. 그치만 난 인정 못해. 난 재일외국인도 외계인도 아냐! 난 나라구! 아니 나조차도 버리겠어. 물음표야. 수수께끼야. 정체불명이라구. 어때 오빠하지. 왜 가만 있어. 쟁쟁 무슨 소리를 찌껄이는 거야! 그래서 어찌라구, 제기랄!

- 그 눈, 그 눈빛이 좋아서.

(영화 『GO』에서 이정호와 사쿠라이 츠바키의 대화)

재일한인들에 대한 호칭은 여러 가지가 사용되어 왔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호칭은 '재일조선인'인 것처럼 보인다. 아마 이 용어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이 내재하고 있는 듯하다. 宮内 洋에 의하면, “필자가 태어나고 자란 오사카 동부에서 적어도 1970년대에도 「조센」이라는 말 자체가 차별어로서 기능하고 있었으며,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개 주저한 듯이 기억하고 있다”(宮内 洋, 1999:11). ‘재일조선인’이란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宮内 洋도 그 호칭을 사용할 때의 심리적인 억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필자가 태어나 자란 지역에서 필자의 활동의 좁은 범위 내에서는 적어도 필자가 기억하고 있는 한에 지나지 않지만,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정도까지는, 공적인 장에서 「조선인」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들은 경우는 드물다. 그 드문 예의 하나로 의무교육시절에 학교에서 빈번하게 행했던 「동화교육」의 장(場)이 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듣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비웃음 내지 조롱과 악의의 감정이 수반되었다. 한편, 스스로 「조선인」이라고 입밖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억압을 받았으며, 필자는 거의 입밖에 내본 적이 없다. 학교내의 친구 간에는 조선에 관계된다고 생각되는 듯한 화제는 터부시되었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심중의 무거움”을 털어내 버린 것은, 필자가 복해도에 옮겨와서 부터이다. 따라서, 필자는 총칭으로서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적고 있지만, 그 당초에는 이전의 심리적인 억압이 방해가 되거나, 목소리를 죽여버리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발음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비교적 말하기 쉬운 「재일」이라는 호칭에 달아나 있었던 듯한 감정도 느낀다. 그러한 경향은 현재에도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宮内 洋, 1999:

14).

하지만 현재 이 호칭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호칭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사람들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의 사람들을 재일한국인, 조선 국적의 사람들을 재일조선인으로 구별해 부르는 것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이란 호칭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 국적의 사람들만 의미할 수도 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칭은 '재일한국·조선인'이다(姜在彦, 1996; 강재언·김동훈, 2000). 宮內 洋에 따르면, "최양일 감독이 만든 영화 「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1993년)에서도 「올바른 호칭」으로 사용되 버릴 만큼, 총칭으로서는 상당히 침투해 있다. 이 호칭을 최초로 제창한 것은, 1933년 부산에서 태어나 1942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徐龍達 씨이다”(宮內 洋, 1999:10). 徐龍達에 의하면, 일본사람들이 사용하는 '재일조선인'과 '재일한국인' 등은 주체적인 용어가 아니며 분단된 조국의 분단상황을 당연시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사람들이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徐龍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국의 분단의 비극은, 우리들 연구자의 생활에도, 끊임없이 그 흉중에 날카로운 무엇인가를 들이대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필자도 이제까지 『한국』, 『조선』의 용어를 논하는 것을 계속 망설이거나 혹은 터부시 해 왔지만, 일반적인 한국·조선인 연구자들도 한결같이 통일적 호칭문제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피하거나 혹은 자신이 인정하는 일방의 호칭에 안주해 온 경향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남·북의 분단도 36년 이상 계속되어, 『한국』, 『조선』 용어의 해결을 일본인사회에 떠맡기고,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 취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판단한다(徐龍達, 1981:317-318; 宮內 洋, 1999:10-11 에서 재인용).

徐龍達이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할 때의 문제의식을 보면, 분단을 넘어서 통일된 조국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재일조선인'과 '재일한국인' 모두 분단된 조국의 분단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호칭이다.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용어는 분단된 조국

의 어느 한쪽을 향하는 용어가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宮內 洋에 의하면 오히려 통일지향적인 사람들은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재일조선인'의 용어를 쓰면서 통일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용어 그 자체가 오히려 분단된 두 개의 나라라는 조국의 현실을 무자각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宮內 洋, 1999:13).

'재일한국·조선인' 못지않게 최근 많이 쓰이는 호칭으로는 '재일코리안(ざいにちコリアン)'이 있다(金贊汀, 1997). '재일코리안'이라는 호칭의 사용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주로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宮內 洋, 1999:12). '재일조선인'과 '재일한국·조선인' 등의 호칭 등이 재일한인들 사이에서 전폭적으로 지지 받는 통일된 호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긴장을 초래하지 않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재일코리안'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매스미디어에서, 양쪽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한편, '재일코리안'이란 용어에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조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아마 조선인이라는 용어가 주는 느낌이 일본사회 속에서 살면서 받은 차별과 억압 등과 통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불행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싶어하는, 현재 혹은 미래지향적인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이 또한 매스미디어에서 '재일코리안'이라는 호칭을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Ⅲ. '재일(在日)'의 의미: 운전차의 논의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이라는 호칭 모두 '재일'이라는 단어를 앞에 달고 있다. 각각의 호칭을 사용하는 측은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재일'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연 '재일'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일본에 있다는 지리적

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가? 아니면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그 어떤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재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재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윤건차의 ‘재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윤건차는 ‘재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재일’은 한 사람의 인간 속에 일본과 조선이라는 두 개의 국가나 민족, 출신이나 언어, 습관이나 문화 등이 혼재하고 있다. 그 일본과 조선을 잇는 것은 역사적 기억이고 현재 생활이다. 더구나 그 역사적 기억은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분열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생활도 아무런 위화감 없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면 편견이나 차별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치적 처우의 구체적 장에서 분열하고 침묵하게 대립하는 부분도 있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오히려 ‘재일’ 아이덴티티의 전체가 관계성 변화의 연쇄 속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윤건차, 1999: 297).

윤건차에 의하면 ‘재일’의 아이덴티티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재일’은 존재하는 내외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다. 다시 윤건차에 의하면,

‘재일’은 역사의 한 토막(장면)이다. 당연히 ‘재일’을 어떻게 정의할 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절대적인 조선인도, 절대적인 일본인도, 절대적인 재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타자와의 관계성에서 자기도 변화하고 자기의 삶의 방식에 따라 타자와의 관계성도 변화한다. 국가의 틀이나 남북한의 통일 등 정치 그리고 경제의 변동에 의해서도 변화해 간다. 문제는 특정시대, 특정조건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적 존재로서 ‘재일’이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생취하고 타자와 공존하는 길을 확보해 가는 것이다. (윤건차, 1999:312)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경까지만 해도 ‘재일’의 아이덴티티는 민족에 근거를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을 자연적인 혈연적 공동성을 전제로 하여 언어, 종교, 도덕, 생활양식, 풍속 및 관습 등의 전통문화를 공유하면서 비슷한 의식 내지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본다면 이 기간 동안의 재일한인의 아이덴티티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재일한인은 일본정부의 <동화 혹은 배제> 정책에 의해서 일본인이 될지 아니면 비일본인으로서 차별을 받을 지 선택을 강요받았다. 이런 억압적 상황 속에

서 재일한인 1세대들은 한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토대로 일본인에 대항하는 자기의를 다져나갔다. 1970년경, 재일한인들의 대다수는, 한국이나 조선으로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반영구적으로 정주하면서, 일본국적을 따지 않은 채 조선인이나 한국인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神奈川 현이 1984년에 현 내에 살고 있는 재일한인에 대해서 실시한 사회조사의 결과에서도, 대다수의 응답자는 '강한 동화강제의 임팩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더라도, 역사적 규정성 속에서 굳이 민족적인 것을 지향하는 자세를 취하려고 한다'라고 보고되었다 (尹健次, 1992:244). 이것은 재일한인이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당시의 '재일'은 강렬한 반일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남한이나 조선의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와 맞물려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발전해 가기도 하였다 (윤건차, 1999:310).

고향을 그리워하고, 차별에 반발하면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는 1세대의 피나는 삶의 모습을 尹健次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은 일본이라는 이국 속에서 조선의 오랜 생활양식을 지켜가며, 그것을 관찰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두었다. 겉으로 보기에 자식들이나 일본인에게 얼마나 이질적으로 비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였다. 1세의 세계는 일견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소우주'였지만, 근본적인 이질 속에서 동질화된 피억압자였던 까닭에, 억압자인 일본인을 포함한 타자(타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거부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 2세, 3세로서도, 그러한 1세의 삶의 의미는 거꾸로 「편견」으로 오염되어 1세의 일벌레의 모습조차도 마치 민족적 열등감의 근원인 듯이 느껴졌다 (尹健次, 1992:257).

하지만 재일1세대들이 지닌, 민족에 바탕을 둔 '재일'의 아이덴티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질화된 민족으로서의 의식이 약화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2세와 3세에 이르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모른다. 1세로부터 2세, 3세로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1980년대 이후 재일한인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2세, 3세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이들은 1세와는 달리 한국이나 조선을 조국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양식이나, 의식, 감정 등도 1세와는 다르다. 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1세 때와는 너무 다른 것이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의 기본 논리를 <동화 혹은 배제>에서 <민족공생, 또는 다문화주의>로 방향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재일한인 2세와 3세들이 배타적 민족의식을 떠나서 다른 정체성을 모색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일 조선인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의 산사태 같은 커다란 변화로서의 동화현상이 현저해 지고 있다. 그것은 물론, 세대교체의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또, 극히 정치적인 이유로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다. 젊은 세대의 민족의식은 풍화(風化)되는 한편, 「조국」이나 「북」, 「남」이라는 정치적 발상도 회박해져서, 무엇보다도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이 과반수를 넘어서게 되었다. 식민지 지배의 가혹함을 모르는 채, 「풍요로움」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일견 이미 약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패션을 즐기며 해외여행을 하는 등, 일본의 젊은이들과 같은 정도의 향락적인 생활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일」의 젊은 세대의 그 내면에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일본의 “젊은이 풍조”의 속에서, 「재일」의 젊은이들은 표면적인 화려함과는 정반대되게 더욱 폐쇄적인 세계에 틀어박혀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차별이나 편견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일본사회의 모순·체질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태반의 젊은이들이 부모에 의해 「일본이름」이라는 「통명(通名)」으로 불려진다고 하는 현실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본명으로 불려질 수 없는 「재일」의 젊은이들은, 자아의 근원에서 감추는 것을 강요당해 습관화되어 버리고, 일본의 미-이즈름(ミーイズム, meism, 자기중심주의)의 풍조에 물들어서 이중의 의미로 “자아의 비극”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된다 (尹建次, 1992:259-60, 팔호안은 필자).

이제 ‘재일’의 실태는 다양하다. ‘재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급속히 희박해져 가고 있다. 민족으로 재일한인들을 통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재일’은 “국적도 다르며 고향도 다르며 언어에 대한 감각도 다르다. 문화나 습관도 다르고, 조선적인 것이라든지 일본적인 것에 대한 감성의 상태라든지 인식의 방법도 천차만별”이다 (윤건차, 1999:312). 尹建次에 따르면,

실제로 조선의 피를 계속 받아 일본에서 태어난 자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출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본명을 사용해서, 조국통일이나 차별철폐·시민권획득의 운동을 전개할 만큼 자긍심 높은 민족의식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본명을 사용하면서 그만큼 눈에 띄는 일없이 보통의 생활을 영위해 간다. 한편, 「일본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조선반도와 연결된 출신을 태연하게 긍정하는 사람, 「일본이름」을 사용하는 동시에 조선인인 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는 사람도 있다. 「귀화」한 조선인은, 많은 적든 「꺼림직함」을 계속 느끼며 살아가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혈인은, 역시 조선과 연관있는 출신을 강하게 의식해 가면서 살아간다 (尹建次, 1992:262).

민족의식은 회박해졌지만 재일한인이라는 자신의 출신을 어떻게든 안고 사는 재일한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윤건차의 고민이 시작된다. 1세대들이 지냈던, 일본인에 대항하는 배타적 민족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정체성을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인가? 앞서 '재일'에 대한 윤건차의 정의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재일'의 바람직한 정체성에 대한 윤건차의 해법은 다음의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특정시대, 특정조건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적 존재로서 '재일'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존엄을 쟁취하고 타자와 공존하는 길을 확보해 가는 것이다” (윤건차, 1999:313). 인간의 존엄성 추구하고 타자와의 공존을 핵심으로 하는 '재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사회에 존재하는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에 저항할 수 있는 민족의식의 회복이 중요하며, 이런 민족의식은 타자와의 공존·공생을 추구하는 열린 민족의식이 되어야 함을 그는 강조한다.

'재일'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민족을 특권화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억압과 괴역압, 가해와 피해를 고정화하는 것이 아닌 근대 일본과 조선, 나아가서는 세계의 역사적 경험을 하나의 공통경험으로 받아들여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역사 의식, 민족의식을 기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러한 민족의식은 타자에게도 열린 민족의식이고, 게다가 자기 및 타자에 대한 한없는 성찰과 화해로의 노력 내지 투쟁을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다 (윤건차, 1999:313).

열린 민족의식을 가지고 일본사회와의 공생을 추구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윤건차는 공생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을 확보해 가는 것 또한 중

요함을 일깨운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의 공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공존과 공생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자기 및 타자에 대한 한없는 성찰과 화해로의 노력 내지 투쟁”은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의 공생이 가진 함정을 지적하는 것이다. 불평등하다면 싸워서 공존하기 위한 평등한 조건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건차에 의하면 현재의 일본사회는 아직 ‘재일’이 일본인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아닌 것이다.

일본에 정주하는 재일조선인이 일본인과의 공생을 주장하고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있는 것이다. ... 역사적, 구조적으로 ‘재일’과 일본인은 평등하지 않고 그 공생은 전제로서 민족적인 불평등을 내포한 것이다. 게다가 ‘재일’은 분단국가를 ‘조국’으로 가지고 국적 내지 국적표시도 ‘한국’이나 ‘조선’으로 분열되어 있다. ‘재일’은 일본국가에 의해 식민지 지배되고,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억압받고 차별되어 온 객체적 존재다. 뿐만 아니라 그 일본은 지금까지도 과거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침략’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강제연행기 조선인출신 일본군인, 군속,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자 등에 대해 사죄, 배상, 기타 ‘과거의 청산’을 거부한 상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일조선인에게 일본은 여전히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공생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윤건차, 1999:289).

IV.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민족의식에 기반한 재일한인의 정체성은 1세에서 2세, 3세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재일한인의 대다수를 점하는 젊은 2세, 3세들의 정체성은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까? 어떤 정체성을 모색하면서 구축해가고 있는 것인가? 민족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일본사회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그만큼 젊은 재일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복합적이며 다양하기 때문이다.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젊은 재일한인들의 정체성을 본

격적으로 탐구한 연구로는 福岡安則(1993)의 「在日韓國·朝鮮人: 젊은 세대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福岡安則은 소수민족집단의 아이덴티티 연구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님미 허트닉(Nimmi Hutnik, 1986)의 정체성 유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허트닉은 영국에 거주하는 인도인 2세들의 정체성 연구를 위해서 <표 1>과 같은 유형분류를 시도한다. 이 표의 세로축은 민족적 아이덴티티 집단에의 일체화(인도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각)의 정도를 의미하고, 가로축은 다수집단에의 일체화(영국시민이라는 자각)의 정도를 나타낸다.

허트닉에 의하면, 민족적 아이덴티티 집단과의 일체감이 강하고 다수집단과의 일체감 역시 강한, 제1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문화적변(Acculturation)'되는 사람들이다. 즉 이들은 부분적으로 민족성을 보유하면서 다수 그룹에도 순응해 가고자 하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민족적 아이덴티티 집단과의 일체감이 강하면서 다수집단과의 일체감이 약한, 제2사분면에 속하는 사람들은 '분리(Dissociation)'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수집단에 거리를 두면서, 어디까지나 민족적 소수그룹에 귀속하려고 하는 지향성을 지닌다. 민족적 아이덴티티 집단이나 다수집단 둘다와의 일체감이 약한, 제3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주변화(Marginality)'된다. 이들은 민족적 소수집단에도 그리고 다수집단에도 일체감을 느끼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족적 아이덴티티 집단과의 일체감이 약하면서 다수집단에의 일체감이 강한, 제4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다수집단에 '동화(Assimilation)'된다. 이들은 민족성을 버리고, 다수집단에 속하려고 하는 지향성을 지닌다.

<표 1> 소수민족집단의 정체성 유형분류

		다수집단에의 일체화	
		강	약
민족적 아이덴 티티 집단에의 일체화	강	문화적변 (Acculturation)	분리 (Dissociation)
	약	동화 (Assimilation)	주변화 (Marginality)

자료: Hutnik(1986); 福岡安則(1993).

福岡安則은 재일한인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위에서 논의된 허트닉의 정체성 유형분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지만, 허트닉의 유형분류를 재일한인의 연구에 곧바로 적용시키기 어려운 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민족적 아이덴티티 집단에의 일체화라고 하는 세로축은 재일한인의 연구에 그대로 도입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일한인이 지향하는 민족적 아이덴티티 집단은 똑같은 집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의 분단상황을 반영해서, 재일한인사회에서도, 민족조직이 민단과 총련으로 나뉘어져 있다. 게다가, ‘북도 남도 아년’이라는 형태의 민족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민족적 아이덴티티 집단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집단의 내용이 복잡성을 띄게 될 때 그 변수를 유형분류를 위한 한 축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둘째, 다수집단에의 일체화라고 하는 가로축의 적용도 재일한인사회에서는 현실적합성을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자란 일본의 지역사회에 애착을 가진 재일한인은 많지만, 국가라고 하는 수준에서 생각하면 일본에 애착을 가진 재일한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인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재일한인이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정체성 유형분류를 위해 다수집단과의 일체화란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셋째, 민족적 아이덴티티 집단에도 그리고 다수집단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즉 ‘주변화(Marginality)’를 경험하고 있다고 정의되는 사람들을 허트닉은 딜레마 상태에 빠져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국적이나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문화접변’, ‘분리’, 그리고 ‘동화’는 사람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지향성으로 정의되면서, ‘주변화’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의 결과물로서 정의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福岡安則, 1993:87-88).

소수민족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허트닉의 유형분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福岡安則은 재일한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재일한인사회에 현실적합성을 갖는 독자적인 정체성 유형분류를 시도한다. 가로 세로의 두 축을 교차시켜서 생기는 네 가지의 특성을 분류하는 방식은 허트닉의 방식과 같지만 가로와 세로 두 축의 변수는 허트닉이 설정한 것들과 사뭇 다르다. 福岡安則은

허트닉의 두 축 보다 오히려 재일한인사회를 분석하는데 현실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두 축을 설정한다. 세로축은 조선인 피억압 역사의 중시도이며, 가로축은 일본에서 성장한 지역에서의 애착도이다. 福岡安則은 이 두 축을 교차해서 표를 만들고 (<표 2>), 재일한인의 정체성의 유형을 ‘공생지향’, ‘조국지향’, ‘개인지향’, 그리고 ‘귀화지향’으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표 2> 재일한인의 정체성 유형분류: 福岡安則

		일본에서 성장한 지역에서의 애착도	
		강	약
조선인 피억압 역사의 중시도	강	공생지향 (함께 살기)	조국지향 (재외공민)
	약	귀화지향 (일본인 되기)	개인지향 (자기실현)

자료: 福岡安則(1993).

조선인 피억압 역사를 중시하며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일본의 지역사회 역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공생지향’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민족문화도 제대로 계승하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한국어와 민족문화의 결여를 그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어를 익히고 민족문화를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본국의 한국인이나 조선인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일본인과 동일시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는 곧 이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체성이란 바로 ‘사회적 차별에 싸워 나가면서 일본인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을 ‘공생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金贊汀, 1994).

福岡安則은 ‘공생지향’적 정체성의 등장을 1975년 무렵 결성된 시민운동네트

위크인 민투련(民闘連)에서 찾는다. 福岡安則이 묘사한 민투련 회원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현재 30대 후반의 「민투련」의 리더들의 생활사를 보면, 통성명으로서 일본이름을 쓰며 일본의 학교에 다니던 어린시절에 일본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받았으며, 재일한국·조선인인 자기자신에게 「마이너스 이미지」를 짊어지고 온 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어떠한 기회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배우고서, 자신들이 품어왔던 갈등이 한국인·조선인이라는 것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회의 차별에 있는 것이란 걸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일본사회에서 「재일 한국·조선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형태로 아이덴티티 형성을 이뤄가고 있다. 또한, 「민투련」의 차세대에 해당하는 20대의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리더층과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자기 이미지」의 내면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린시절부터, 자신의 근처에서, 이른바 삶의 방식의 기준을 보고 자라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들/그녀들은, 자기에게서 「조국은 없다, 자신의 나라도 없다」지만, 「자신의 고향은, 일본 안에서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의지치를 「조국」에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체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사회에의 애착도는 강하다 (福岡安則, 1993:90-91).

이 글의 도입부에서 필자가 인용했던 영화 『GO』의 주인공 이정호는 ‘공생지향’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듯 싶다. 영화는 이정호를 통해서 ‘공생지향’적인 젊은이들을 좌절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배타적 민족주의와 이들 앞에 존재하는 일본인들의 사회적 차별을 고발하고, 이런 억압들을 싸워서 이겨내려는 젊은이들의 용기를 묘사한다. 일본인과 함께 살려고 하는 젊은 재일한인들에 놓여져 있는 엄청난 사회적 차별을 이 영화는 이정호가 여자친구인 사쿠라이 츠바키에게 자신이 재일한인임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충격적으로 그려낸다.

- 왜 그래? (사쿠라이 츠바키)
- 할 말이 있어. 나 자신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꼭 말해야 할 것 같애. (이정호)
- 무슨 말인데?
- 부담없이 들어줘. 난 ... 일본인이 아니야.
- 무슨 소리야?

- 말 그대로 내 국적은 일본이 아니야.
 - 어딘데?
 - 한국. 중학교까진 조선이었고, 반년 후엔 일본이 될 지도 모르지.
 - 무슨 소리야?
 - 국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어?
 - 응. 학교는 달라. 중학교까지 민족학교에서 조선어를 배웠어. 두 개 국어에 능통해. 올림픽 때는 두 나라를 응원해. 부럽지? 고백 끝.
 -
 - 왜? 왜 그래? (이정호)
 - 어릴 때부터 아빠가 말했어. 한국인이나 중국인을 사귀면 안된다고.
 - 이유가 뭔데?
 - 몰라. 아빠는 한국인이나 중국인은 피가 더럽데.
 - 아하하하하하
 - 왜 웃어? 미안해.
 - 왜 사과해?
 -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이 안 따라와. 널 내 몸안에 받아들여기가 무서워. 별거 아니라며 왜 숨겼어? 너무해.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만들고 혼자 가니? 난 처음이란 말야. 안 그래도 겁나는데 말 좀 해 봐.
- (영화 『GO』에서 이정호와 사쿠라이 츠바키의 대화)

‘공생지향’적이라는 것이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윤건차가 지적한 바대로 이들은 공생의 함정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인 차별의 역사를 잘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사회에 존재하는 재일한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역시 역사적인 조선인 차별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알고 있다. 윤건차의 지적대로 “재일”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소산이고 구중주국에 거주하는 이전의 피식민지인 및 그 자손이다. 역사적 구조적으로 ‘재일’과 일본인은 평등하지 않고 그 공생은 전제로서 민족적인 불평등을 내포한 것이다”(윤건차, 1999:289). 곧 ‘공생지향’적인 사람들은 일본사회에서 공생을 추구하면서 공생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종구·장화경, 2000). 福岡安則에 의하면, “이 타입의 중심과제는, 일본사회에서의 민족차별을 없애고, 민족적 태생을 달리하는 사람끼리 그 입장의 차이를 털어 버린 다음, 「함께 살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사회변혁」의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을

피한다. 하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뿌리를 두고서, 자기 주위에서부터 사회를 바꾸어 가려고 하는 지향성이 강하다”(福岡安則, 1993:90).

태어나서 자란 일본에 대한 애착은 별로 없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억압과 가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일본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조국지향’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모국의 통일과 발전이다. ‘조국지향’적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총련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하나의 조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태어나서 자란 일본에 대한 애착심은 없는 반면에 일본에 대한 비판의식은 상당히 강하다. 이들은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본어를 습득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민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은 재일한인 1세의 민족의식에 뒤지지 않는다. 한국어를 말할 수 없는 것은 조국을 상실한 불행한 모습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름을 사용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름은 민족이름 하나뿐이다. 福岡安則은 ‘조국지향’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그녀들의 전형적인 생활사를 보면, 부모의 권유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혹은 심지어 대학교까지 총련계의 「민족학교」에 통학하고, 거기서 조선의 말·역사·문화를 배운다. 이러한 민족교육을 통해서, 이른바 자명한 것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내면화 해 간다. 그들/그녀들이 자신은 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민족 아이덴티티의 갈등을 체험하지 않는다. 민족학교에 다니면서 일본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그들/그녀들의 「자긍심」은 강하다. 미움을 받더라도, 조선인인 자신이 싫다고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들/그녀들은 자신들의 조국도 자신의 나라도 「하나의 조선」이라고 단언한다. 일본의 조선침략의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일본에의 비판의식은 강해진다. 그에 반하여, 태어나서 자란 일본에 대한 애착심은 얕다. 일본은 「단순한 외국」이라는 감각만 가진 사람도 있다. 「조국지향」타입의 젊은이에게는, 그 삶의 방식의 모델은 「조국의 조선인」이다. 실제로 “통일이 달성될 때에는 조국에 돌아가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福岡安則, 1993:93-94).

‘조국지향’적인 재일한인들은 민족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일한인 사회에서 강한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과의 공생이

라는 것에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학교교육과 취직도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민족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들여왔고, 총련을 통한 자력구제 형식으로 취직 등 재일한인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편이다. 이들의 중심과제는 “「조국의 발전」, 「조국의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일본사회에 거주해도 일본에 동화되지 않고, 「재외공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재일조선인사회」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福岡安則, 1993:92). 그래서 일본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선 아주 배타적이고, 일본인과 공생을 주장하는 측과도 잘 연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조국지향’적인 재일한인들이 일본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가 하는 것은, 영화 『GO』에서 그려진 바와 같이, 일본인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에게 폭언을 하면서 구타하는 민족학교 교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민족반역자, 배신자, 반쪽발이 새끼, 매국노. 일본학교에 간다니 민족혼까지 팔아먹었냐?”. 일본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는 ‘조국지향’적 사람들에게 일본국적의 취득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민족의식이 투철한 이들에게는 민족과 국적의 분리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들은 또한 재외공민으로서의 권리침해에는 강력히 반발하지만, 공생을 추구하는 재일한인들이 싸워서 얻으려는 지방선거에 대한 참정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참정권을 얻는 것은 어찌 보면 일본사회로의 동화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공생지향’적 사람들이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는 운동을 벌일 경우 자신들이 사는 일본사회의 문제로 설정하여 일본인들과 더불어 차별철폐운동을 벌여나가는 것과는 달리, ‘조국지향’적 사람들은 일본인과 같이 연대하여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사람들과 연대하는 것 대신에 조국과 연대하여 같은 동포들로서만 싸워나가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된 조국이며, 그 때까지 재일한인 사회의 공동체적 결속을 유지하며, 재외공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이다. 일본에서 일본사람들과 평등하게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바와 다른 길인 것이다.

일본사회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 대하여 별다른 감각도 없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사회적 출세를 위해서 살아

가는 사람들이 지닌 정체성을 福岡安則은 '개인지향'적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관계지워진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개인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나 조선 혹은 일본에 대해서도 별다른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 이들은 민족, 국적이라는 사회적 개념들에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와 무관한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재일한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차별을, 사회적인 힘을 모아 대항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다. 교육과 직업 등에 주어지는 사회적 평판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그런 사회적 차별을 이겨내려는 것이다. '개인지향'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민족이나 국가로부터 가능한 자유롭고 싶어한다. 민족이나 국적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평판이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해서 이 답답한 지상에서 멋있게 홀로 비상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福岡安則은 '개인지향'적 정체성의 전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러한 「개인지향」 타입의 주된 사람들은, 미국 등에 유학가는 젊은이들, 혹은 일본의 "일류대학"을 졸업하는 것으로, 외국자본계기업이나 일본의 "일류기업"에의 취직을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로 보인다. 그들/그녀들의 전형적인 생활사를 보면, 특징적인 것은 자기자신의 능력에 일정한 자신을 가지고 생활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사회에 재일한국·조선인으로서 산다는 것의 위화감이나 갈등을 체험하더라도, 그것이 자아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되지는 않는다. 자기자신에게 마이너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해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를 외국으로 가거나 혹은 일본 국내에서의 상승이동에 의해 달성하려고 생각한다. 그들/그녀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방식 모델은 「코스모폴리탄」이라 말할 수 있다 (福岡安則, 1993:95-96).

조선인 차별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전혀 갖지 못한 채, 태어나서 자란 일본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일본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귀화지향'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들은 재일한인으로서 차별을 받기 위해서 일본인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일본의 조선침략의 역사도 일본사회에 내재해 있는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도 이미 지나간 버린 역사이며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름도 일본이름만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들은 일본국적을 취득하길 원한다. 그들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인들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한국이나 조선이 아닌 일본이다. '귀화지향'적 정체성을 지닌 재일한인의 성장과정을 福岡安則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들/그녀들의 전형적인 생활사를 보면, 자신의 가족이외에는 주위에 일본인뿐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가족 전부 일본이름을 사용하고 민족적 출신을 숨기는 형태로서 성장한다. 가족내에서의 생활양식도 민족적인 요소의 유지 정도가 낮다. 그래서, 꽤 크게 성장할 때까지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조선인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가 그들/그녀들의 의식 속에서 내면화 되어간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재일한국·조선인인 것을 아는 시점에, 그들/그녀들은 고민한다. 거기서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재일 한국·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귀화감」을, 주위의 일본인사회에 「적응」하는 것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성장기의 특성으로서, 친한 친구는 일본인뿐이다. 친한 일본인 친구들과 "갈게"되고 싶다고 바라는 그들/그녀들은, 한국인·조선인으로서의 민족성으로부터 점점 도피적 태도를 취한다. 그들/그녀들은 「자신의 나라는 한국·조선이 아닌, 일본이다」라고 단언한다 (福岡安則, 1993:97).

'귀화지향'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귀화자와 이중국적 출생자이다. <표 3>을 통해서 우리는 1990년대 전반부 동안 재일한인 중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들과 이중국적 출생자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의 수는 1980년대 말까지는 대략 매년 약 5,000 명 정도였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1995년부터는 일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매년 10,000 명이 넘고 있는 상황이다. 귀화자가 최근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가족 내에서 민족의식을 강조하였던 1세대들이 사라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귀화지향'을 가진 2세, 3세대로서는 귀화를 강력히 거부해왔던 1세대들이 사라지면서 귀화의 장애가 해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3〉 재일한인 증감 요인별 추이 (90년대 전반)

연도	한국단일 국적출생	한일이중 국적출생	한국국적 출생총수	사망	귀화	자연증감 (1)	자연증감 (2)
1992	4,935	3,407	8,832	4,360	7,244	-2,772	-6,669
1993	4,553	3,249	7,802	4,268	7,697	-4,163	-7,412
1994	4,486	3,647	8,135	4,291	8,244	-4,400	-8,049
1995	3,971	3,281	7,252	4,577	10,327	-7,652	-10,933

주 ①: 한국국적출생총수는 한국 단일국적 출생자와 한일이중국적 출생자의 수를 합한 것임.

②: 자연증감(1)의 수치는 한국국적 출생총수를 대상으로 계산한 것임.

자연증감(2)의 수치는 한국단일국적 출생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정인섭 (1999).

1985년 일본의 국적법 개정을 기점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재일한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1985년 이전까지 일본은 부계 혈통주의를 고수했는데 1985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 그 이후로 재일한인 부와 일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일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표 3>을 보면 1990년대 전반부에 매년 3,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한일이중국적을 태어나면서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985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한국국적을 가져야 했던 이들이 1985년부터 한일이중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재일한인의 젊은 세대에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들 이중국적자는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국적을 선택하기 이전에는 일단 일본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정인섭은 이들 거의 대부분은 국적선택시 일본국적을 취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중국적자 중 과연 얼마만한 숫자가 생활근거지의 국적을 포기하고 귀국가능성도 희박한 한국을 국적국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 2세나 3세들은 적어도 1세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2세와 3세들의 대부분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므로 자식에게 한국어 등 민족교육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자란 후손들은 한국에 대한 별다른 귀속의식을 못느낄 것이므로 이중국적자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국적을 선택할 것이 분명하다. 국적선택은 귀화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 국적의 포기에 따른 심적 고통도 크지 않을 것이다” (정인섭, 1999:439).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과 이중국적 출생자들은 ‘귀화지향’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겠지만 그런 삶이 그리 쉬운 삶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일본사회가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에게 열려진 사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아무리 귀화를 해도, 이중국적자가 일본국적을 선택하더라도, “민족적 출신을 달리하는 자에 대해서 ‘일본인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는 사회의식이 일본사회에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福岡安則, 1993:104).

V.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대한 경험적 논의¹⁾

1) 재일한인에 대한 호칭에 관하여

133명의 재일한인들에게, 일본에서 재일한인을 지칭할 때,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가운데 어떤 호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표 4>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재일한인의 73.8%가 재일한인에 대한 여러 호칭들 가운데 ‘재일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재일한국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호칭은 ‘재일한국·조선인’이며, ‘재일조선인’과 ‘재일코리안’은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한인을 지칭할 때 어느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라는 질문

1) 이 절은 오사카와 코베지역에 거주하는 재일한인 13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확률표집의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재일한인의 표집틀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운 현실 때문에 비확률표집인 임의표집과 할당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여 133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세대별(1세, 2세, 3세), 성별, 연령별로 할당을 주어 표본을 구성했다.

에 대해서는 역시 가장 많은 재일한인들이 '재일한국인'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재일코리안', '재일한국·조선인'을 꼽았으며, '재일조선인'의 호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 밖에 되지 않았다.²⁾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호칭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호칭을 비교하면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재일한국인'의 호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희망호칭으로서의 비중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중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반수를 조금 넘는 사람들이 '재일한국인'의 호칭이 가장 바람직한 호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은 현재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희망호칭으로서도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희망호칭으로서의 '재일한국·조선인'의 호칭 역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만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재일코리안'의 호칭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는 호칭이지만, 거의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재일한인을 지칭할 때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일코리안'의 호칭에 대한 선호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보면, 재일1세와 재일2세보다 재일3세가 더 많이 이 호칭을 바람직한 호칭으로 여기고 있다 (재일1세의 25.0%, 재일2세의 24.2%, 재일3세의 37.8%가 '재일코리안'을 가장 바람직한 호칭으로 여기고 있다).

'재일한국인'과 '재일코리안'을 바람직한 호칭으로 여기고, '재일조선인'을 바람직한 호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표본으로 선택된 응답대상자의 특성과

2) 재일한인에 대한 호칭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호칭과 사용되기를 바라는 호칭이 '재일한국인'으로 나타난 것은 이 사회조사의 표본의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 133명의 국적분포를 보면, 107명이 한국이며, 일본이 4명, 조선이 9명, 기타가 1명, 무응답이 12명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재일한인 가운데 한국을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표본에 과대표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이 '재일한국인'의 호칭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것과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에 영향을 끼쳤음이 틀림없다. 이것은 재일한인에 대한 사회조사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조선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조선국적의 재일한인들을 더 많이 표본으로 선정할 수 있었으면, 지금의 표본보다 훨씬 더 대표성이 있는 표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표본에 더 넣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관계가 있는 듯이 보인다. 응답대상자의 국적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호칭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번 조사에서 조선을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일한인을 표본에 많이 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아마 조선이 국적인 재일한인들은 많은 경우 ‘재일조선인’을 바람직한 호칭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표 4> 재일한인에 대한 호칭

호 칭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칭(%)	사용되기를 바라는 호칭(%)
재일한국인	73.8	53.2
재일조선인	4.8	4.0
재일한국·조선인	19.0	12.9
재일코리안	2.4	29.8
합 계	100 (126명)	100 (124명)

<표 5>는 ‘재일코리안’이라는 호칭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다. 56.9%가 그저 그렇다에, 35.4%가 찬성한다에, 그리고 단지 7.7%가 반대한다에 응답했다. ‘재일코리안’의 호칭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은, 재일3세의 상당수가 이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바라는 것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다. 일본의 매스 미디어에서 재일한인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 호칭은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의 호칭과 달리, 이 호칭은 재일한인 사이에서 정치적인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고, 재일한인들에게 거부감이 별로 없으며, 그리고 젊은 재일3세들이 많이 선호하는 호칭이기 때문이다.

<표 5> 재일코리안이라는 호칭에 대한 태도

태도	%
아주 찬성한다	4.6
찬성한다	30.8
그저 그렇다	56.9
반대한다	5.4
아주 반대한다	2.3
합계	100 (130명)

<표 6>은 통일지향적 혹은 분단지향적 태도와 재일한인에 대한 바람직한 호칭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宮內 洋(1999)은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즉, 그는 통일지향적인 재일한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재일조선인'의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볼 때 宮內 洋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것처럼 보인다. 宮內 洋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통일지향적 혹은 분단지향적 태도에 관한 문항을 질문지에 넣었다.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음의 두 가지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1)통일이 되어야 한다, 2)한국과 조선 두 나라가 존재하는 현 상황이 지속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사람을 통일지향적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한국과 조선 두 나라가 존재하는 현 상황이 지속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사람을 분단지향적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분류했다.

<표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통일지향적 혹은 분단지향적 태도와 재일한인에 대한 바람직한 호칭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호칭의 분포는 서로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사용한 '통일지향적'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그리고 이 개념을 측정하는 질문문항에 대하여 宮內 洋은 동의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개념정의와 측정수단이 다르면 다른 분석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지향적 혹은 분단지향적 태도와 재일한인에 대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호칭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표 6> 통일지향적 혹은 분단지향적 태도와 재일한인에 대한 바람직한 호칭사용

호 칭	통일지향적	분단지향적	합 계
재일한국인	50 (52.1)	12 (54.5)	62 (52.5)
재일조선인	4 (4.2)	1 (4.5)	5 (4.2)
재일한국·조선인	12 (12.5)	3 (13.6)	15 (12.7)
재일코리안	30 (31.3)	6 (27.3)	36 (30.5)
합 계	96 (100.0)	22 (100.0)	118 (100.0)

$X^2=0.14$ $p>0.05$.

응답자 자신의 이름과 재일한인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호칭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응답자 자신의 이름에 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했다. 본명이 한국 혹은 조선이름인지 아니면 일본이름인지, 본명 이외에 통명으로 사용하는 일본이름이 있는지, 그리고 본명과 통명 가운데 어느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재일한인의 92.3%가 한국 혹은 조선이름을 본명으로 가지고 있으며, 재일한인의 87.7%가 통명으로 사용하는 일본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명을 가지고 있는 재일한인 가운데 65.2%가 본명보다 통명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표 7> 본명 혹은 통명의 주된 사용과 재일한인에 대한 희망호칭

호 칭	본명을 더 많이 사용	통명을 더 많이 사용	합 계
재일한국인	14 (37.8)	46 (66.7)	60 (56.6)
재일조선인	3 (8.1)	1 (1.4)	4 (3.8)
재일한국·조선인	4 (10.8)	6 (8.7)	10 (9.4)
재일코리안	16 (43.2)	16 (23.2)	32 (30.2)
합 계	37 (100.0)	69 (100.0)	106 (100.0)

$X^2=9.69$ $p<0.05$

<표 7>을 보면, 본명 혹은 통명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재일한인에 대한 희망호칭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명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재일코리아인'의 호칭을 선호하고, 통명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재일한국인'의 호칭을 선호하는 것이다. 즉, 본명 혹은 통명의 주된 사용과 재일한인에 대한 희망호칭의 사용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재일'의 의미변화에 관하여: 재일1세, 재일2세, 재일3세의 차이

'재일'의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유동적이다. 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재일1세의 아이덴티티는 재일2세, 재일3세로 내려오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재일1세와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재일2세, 재일3세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 듯하다. 먼저 재일2세와 재일3세는 재일1세만큼 한국어 혹은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표 8>에 잘 나타나 있다. 재일1세 중 한국어 혹은 조선어를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 반하여, 재일2세의 56.3%가 한국어 혹은 조선어를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재일3세의 43.6%가 한국어 혹은 조선어를 아주 못한다고 대답했다. 세대를 내려갈수록 한국어 혹은 조선어를 잘 못하는 것은 민족의식의 약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재일세대별 한국어 혹은 조선어 사용능력 정도

	재일1세	재일2세	재일3세	합 계
아주 잘한다	14 (87.5)	3 (4.2)	3 (7.7)	20 (15.9)
잘하는 편이다	2 (12.5)	14 (19.7)	8 (20.5)	24 (19.0)
못하는 편이다	0 (0)	40 (56.3)	11 (28.2)	51 (40.5)
아주 못한다	0 (0)	14 (19.7)	17 (43.6)	31 (24.6)
합 계	16 (100.0)	71 (100.0)	39 (100.0)	126 (100.0)

$X^2=82.5$ $p<0.001$

민족의식의 약화는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표 9>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일한인 전체를 보면 73.3%가 일본인과의 결혼을 찬성한다.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모두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 더 많다.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세대별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대가 내려갈수록 일본인과의 결혼을 찬성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재일3세의 경우 83.8%가 일본인과의 결혼을 찬성하고 있다.

<표 9> 재일세대별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

	재일1세	재일2세	재일3세	합 계
찬성한다	10 (62.5)	47 (70.1)	31 (83.8)	88 (73.3)
반대한다	6 (37.5)	20 (29.9)	6 (16.2)	32 (26.7)
합 계	16 (100.0)	67 (100.0)	37 (100.0)	120 (100.0)

$X^2=3.4$ $p>0.05$

민족의식의 약화는 <표 10>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민족 혹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재일1세는 모두 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재일2세, 재일3세로 내려갈수록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일3세의 32.4%가 한국민족 혹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나타나는 민족의식의 상실, 민족정체성의 결여는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하는 사항임에 틀림없다.

<표 10> 재일세대별 한국민족 혹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의식여부

	재일1세	재일2세	재일3세	합 계
정체성 있다	16 (100.0)	62 (88.6)	25 (67.6)	103 (83.7)
정체성 없다	0 (0)	8 (11.4)	12 (32.4)	20 (16.3)
합 계	16 (0)	70 (100.0)	37 (100.0)	123 (100.0)

$X^2=11.4$ $p<0.01$

<표 11>에 나타난 한국, 조선, 일본에 대한 애착도를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애착도는 1점(애착이 없다)부터 5점(아주 큰 애착이 있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 첫째, 재일한인 전체를 보면 국가별 애착도는 한국(4.10)>일본(4.03)>조선(2.14) 순으로 나타난다. 조선에 대해서는 애착이 작은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애착이 크다. 둘째,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것이 한국이건, 조선이건 일본이건 간에, 전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애착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나이든 세대에 비해서 덜 국가지향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재일3세의 경우, 그리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보다 일본에 대하여 더 큰 애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국가에 대한 애착도의 순위가 재일3세부터 바뀐다면, 앞으로 세대가 재일4세, 재일5세로 내려간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재일'의 정체성이 더 많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넷째, 각 국가에 대한 애착도에 있어서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시도했다. F값과 유의도를 보면, 한국에 대한 애착도에 있어서만 세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조선과 일본에 대한 애착도에 있어서는 세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세대가 내려갈수록 한국에 대해서 애착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표 11> 재일세대별 한국, 조선, 일본에 대한 애착도

	재일1세	재일2세	재일3세	전체	
한국	4.81	4.14	3.74	4.10	F=5.8 p<0.01
조선	2.64	2.08	2.08	2.14	F=0.7 p>0.05
일본	4.14	4.03	3.97	4.03	F=0.2 p>0.05

일본에 대한 애착도에 있어서 세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도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2>를 보면, 전체 재일한인의 경우, 25%가 일본국적을 취득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78.5가 일본국적을 취득해도 좋다고 여기고 있으며, 일본국적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 19%밖에 되지 않는다. 세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재일한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세대별로 거의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일1세는 일본국적 취득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재일1세가 일본국적 취득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른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은 한국이나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재일2세나 3세가 일본국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재일1세가 더 관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2> 재일세대별 일본국적을 취하는 것에 대한 태도

	재일1세	재일2세	재일3세	전체
일본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0 (0)	2 (2.9)	1 (2.6)	3 (2.5)
일본국적을 취득해도 좋다	12 (80.0)	54 (79.4)	29 (76.3)	95 (78.5)
일본국적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3 (20.0)	12 (17.6)	8 (21.1)	23 (19.0)
합 계	15 (100.0)	68 (100.0)	38 (100.0)	121 (100.0)

$X^2=0.6$ $p>0.05$

3)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위에서 고찰한 福岡安則(1993)의 재일한인의 정체성 유형분류를 따라 재일한인의 정체성을 네 가지 유형 ('공생지향', '조국지향', '개인지향', '귀화지향')으로 분류하고, 각 정체성 유형의 분포현황과 재일세대별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정체성 유형의 특성을 다양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조선인 피억압 역사를 중시하고 일본에서 성장한 지역사회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유형을 '공생지향', 조선인 피억압 역사를 중시하면서 일본 지역사회에 대해 애착이 없는 유형을 '조국지향', 조선인 피억압 역사를 중시하지 않고 일본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가진 유형을 '귀화지향', 그리고 조선인 피억

업 역사를 중시하지도 않고 일본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 없는 유형을 '개인지향'으로 분류하고 난 다음, 재일한인들 사이에서 각각의 유형이 차지하는 분포를 살펴본 결과가 <표 13>에 나와 있다. <표 13>을 보면, 재일한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체성 유형은 '공생지향'이다. 재일한인의 44%가 이 유형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재일한인의 32.8%가 '조국지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귀화지향'과 '개인지향'의 정체성 유형은 10%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표 13> 재일한인의 정체성 유형 분포

		일본 지역사회 애착		합 계
		크다	작다	
과거 역사 중시	중요 하다	공생지향 55 (44.0%)	조국지향 41 (32.8%)	96 (76.8%)
	중요하지 않다	귀화지향 14 (11.2%)	개인지향 15 (12.0%)	29 (23.2%)
합 계		69 (55.2%)	56 (44.8%)	125 (100.0%)

재일세대별 (재일1세, 재일2세, 재일3세)로 각 정체성 유형의 분포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 14>를 만들었다. <표 14>를 통해서 우리는 재일세대별 정체성 유형의 분포와 정체성의 변화추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전체 재일한인의 경우 '공생지향'이 가장 많지만, 각 세대별로 나누어서 보면 재일1세와 재일2, 3세는 다른 분포를 보인다. 재일2세와 재일3세의 경우 '공생지향'이 가장 많지만, 재일1세의 경우 '조국지향'이 가장 많다. 재일1세의 절반이 '조국지향'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세대를 내려가면서 '조국지향'의 정체성이 줄어들고 있다. 재일1세의 절반이 지니고 있는 '조국지향'의 정체성을 재일2세의 34.8%, 재일3세의 23.1%만이 지니

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재일세대별 '공생지향'의 분포를 보면, 재일1세가 가장 적고, 재일2세가 가장 많다. 재일2세가 재일3세보다 '공생지향'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넷째, 세대를 내려가면서 '귀화지향'의 정체성이 증가하고 있다. 1세의 경우 '귀화지향'이 없는데 반하여 2세와 3세의 경우 각각 7.6%, 15.4%가 '귀화지향'의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지향'의 정체성의 분포가 증가한다는 것 역시 주목해야 될 사실이다. 다섯째, 재일3세의 17.9%가 '개인지향'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2세의 경우보다 1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일1세의 경우도 상당한 정도의 사람들이 '개인지향'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1세가 '귀화지향'의 정체성은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개인지향'의 정체성을 보이는 것 역시 주목을 요하는 사실이다.

<표 14> 재일세대별 정체성 유형 분포

전체		재일2세	
공생지향 44.0%	조국지향 32.8%	공생지향 50.0%	조국지향 34.8%
귀화지향 11.2%	개인지향 12.0%	귀화지향 7.6%	개인지향 7.6%
재일1세		재일3세	
공생지향 28.6%	조국지향 50.0%	공생지향 43.6%	조국지향 23.1%
귀화지향 0%	개인지향 21.4%	귀화지향 15.4%	개인지향 17.9%

<표 15>는 각 정체성 유형별로 어느 한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특성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조국지향'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한국어 혹은 조선어 구사를 잘한다. '조국지향형'의 사람들 중 43.9%가 우리말을 잘 하는 반면에 '귀화지향형'의 사람들 중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21.4%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역시 네 가지 정체성 가운데 '조국지향'의 정체성을 지닌 재일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통명보다 본명을 더 사용한다. '조국지향형'의 재일한인 가운데 40.5%가 통명보다 본명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생지향형'의 38.6%가 본명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귀화지향형'과 '개인지향형' 가운데 본명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18.2%와 15.4%만이 본명을 통명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셋째,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귀화지향(100.0%)> 개인지향(86.7%)> 공생지향(73.0%)> 조국지향(63.2%) 순서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넷째, 일본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개인지향(100.0%)> 귀화지향(92.9%)> 공생지향(86.5%)> 조국지향(60.0%) 순서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귀화지향형'과 '개인지향형'의 사람들이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나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공생지향형'과 '조국지향형'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는 정체성 유형의 순서로는 '개인지향' > '공생지향' > '귀화지향' > '조국지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지향형'의 36.8%가 대학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반면에 '개인지향형'의 53.3%가 대학교육을 받았다.

다섯째, 일본사회와의 공존·공생에 대한 태도와 각 정체성 유형의 관계를 보면, 역시 '귀화지향'과 '공생지향'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국지향'과 '개인지향'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일본사회와의 공존·공생을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화지향형'과 '공생지향형'의 43%가 공존·공생을 찬성하는 반면에 '조국지향형'과 '개인지향형'의 13%만이 공존·공생을 찬성한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귀화지향형'과 '공생지향형' 두 유형이 공존·공생을 찬성하지만 찬성의 내용은 다를 것이라고 짐작된다. '귀화지향형'은 '일본사회'와의 공존·공생을 찬성하지만, '공생지향형'은 공존·공생에 더 비중

을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국지향형'과 '개인지향형' 역시 모두 공존·공생을 찬성하지 않지만 반대의 내용은 서로 다를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지향형'은 '일본사회'와의 공존·공생을 찬성하지 않는 반면에, '개인지향형'은 '공존·공생' 자체를 꺼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표 15> 재일한인의 정체성 유형별 특성

(단위: %)

	공생지향	조국지향	귀화지향	개인지향
한국어 혹은 조선어 구사를 잘한다.	32.7	43.9	21.4	33.4
통명보다 본명을 더 많이 사용한다.	38.6	40.5	18.2	15.4
일본인과의 결혼을 찬성한다.	73.0	63.2	100.0	86.7
일본국적 취득을 찬성한다.	86.5	60.0	92.9	100.0
일본사회와 공존·공생을 아주 찬성한다.	42.6	12.8	42.9	13.3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많다.	53.7	58.6	21.4	33.4
동포들끼리 뭉쳐서 사회적 차별에 싸워야 한다.	31.4	40.5	20.0	15.4
일본인들과 연대하여 사회적 차별에 싸워야 한다.	60.8	56.8	70.0	61.5
대학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중퇴 및 졸업)	44.9	36.8	38.5	53.3
한국민족 혹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86.6	90.2	64.3	81.0

여섯째, '조국지향'과 '공생지향'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일본 사회에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많은 것으로 여기는 반면에 '개인지향'과 '귀화지향'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이나 편견이 많다고 여기지 않

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일본사회에 존재하는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각 정체성 유형별로 차이를 보여준다. 동포들끼리 뭉쳐서 사회적 차별에 싸워야 한다는 견해보다 일본인들과 연대하여 사회적 차별에 싸워야 한다는 견해가 더 많지만, '조국지향형'의 경우에는 40.5%가 동포들끼리 뭉쳐서 사회적 차별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정체성 유형과 한국민족 혹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유무와의 관계를 보면, '조국지향형'이 민족정체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공생지향' '개인지향' '귀화지향' 순으로 민족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실은, 국가와 민족을 떠나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추구하려는 '개인지향형'과 일본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귀화지향형' 모두, 많은 사람들이 한국민족 혹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귀화지향형'의 경우조차 64.3%가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사회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하여 국적을 바꾸고 싶어 해도 민족에 대한 자의식은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VI. 맺으면서

이제까지 우리는 재일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내용을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했다. 첫째, 재일한인들에 대한 호칭에 내재한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고 난 다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칭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호칭을 파악하고, 통일지향적 혹은 분단지향적 태도와 호칭사용의 관계, 그리고 통명 내지 본명의 사용과 호칭사용의 관계를 분석했다. 둘째, '재일'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재일1세로부터 재일2세, 재일3세로 내려오면서 변화하고 있는 민족의식의 약화현상을 검토했다. 한국어 혹은 조선어 사용능력 정도,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 한국민족 혹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여부, 한국 일본 조선에 대한 애착도, 일본국적 취득에 대한 태도 등을 재일1세, 재일2세, 재일3세별로 나누어서 비교분석하면서 민족의식의 약화현상을 고찰했다.

셋째, 재일한인의 정체성 유형을 ‘공생지향’, ‘조국지향’, ‘개인지향’, ‘귀화지향’으로 구분하여 재일한인의 정체성 유형분포를 정리했다. 또한 재일1세, 재일2세, 재일3세별로 정체성 유형분포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네 가지 정체성 유형별로 각각의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여러 특성들을 분석했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일본에서 재일한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재일한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사회적 차별을 받으면서 한국이나 조선 혹은 일본을 조국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한반도의 통일을 기다리면서 재일한인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나가는 사람들. 일본에 정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일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면서 일본인들과의 평등한 관계가 보장되는 공생을 추구하는 사람들. 국가와 민족을 떠나 자유롭게 개인적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차별을 받기 싫어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고민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아픈 상처를 가슴 한 쪽에 간직하고 있다. 마치 김소진의 소설에 나오는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같은 아픈 상처를.

추운 겨울날 새벽, 마당에 놓여 있는 검은 김치독을 실수로 금가게 하고 혼이 날까봐 혼자 흐느끼며 마당에 쌓인 흰 눈으로 금간 항아리를 덮어 눈사람을 만든 어린 마음들. 그렇다고 금이 간 항아리가 다시 붙여질까? 그렇다고 금이 간 검은 항아리가 흰 눈사람으로 변할까? 민족과 국가를 떠나 자유로운 개인으로 상공을 날고 싶어도, 항아리에 금이 간 것이 밝혀질까 봐 무서워 적극적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싶어도, 항아리에 금이 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얀 눈사람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웃의 사람들에게 어린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항아리에 금이 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깨진 항아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 위에 눈사람을 쌓은 마음을 같이 아파하면서도 그것이 살아가는 좋은 해결책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금간 항아리를 드러내놓고 밝혀야 한다. 그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재일한인의 정체성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제어: 재일 한인, 정체성, 사회 적응, 정체성 유형

참고문헌

- 공봉식·이영동, 1997, 『재일동포』, 문학관.
- 강재언·김동훈, 2000, 『재일한국·조선인: 역사와 전망』 (하우봉·홍성덕 역), 소화.
- 김태기, 1999, “일본정부의 재일한국인 정책”,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외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오자와 유사쿠, 1999,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이충호 역), 혜안.
- 이종구·장화경, 2000, “재일동포의 사회운동과 아이덴티티: 이쿠노(생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논총 14호, 73-112쪽.
- 윤건차, 1999,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인섭, 1999, “재일한인의 국적과 남북한의 국적법 개정”,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인섭, 1996,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츠루오카 마사오, 1997, 『성공한 在日한국인 100인』 (우수근 역), 이회문화사.
- 姜在彦, 1996, 『在日からの 視座』, 新澁社.
- 高演義, 1998, 『<民族>であること』, 社會評論社.
- 金贊汀, 1994, 『在日という 感動: 針路は <共生>』, 三五館.
- 金贊汀, 1997, 『在日コリアン百年史』, 三五館.
- 朴鐘鳴 編, 1999, 『在日朝鮮人: 歴史, 現状, 展望』, 明石書店.
- 尹健次, 1992, 『<在日>をきるとは』, 岩波書店.
- 李恩子, 1998, “在日朝鮮人としての自己解放とアイデンティティ”, 『ほるもん文化』, 8号.
- 福岡安則, 1993, 『在日韓国・朝鮮人: 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公新書.
- 宮内 洋, 1999, “私はあなたの方のことをどのように呼べば良いのだろうか: 在日韓国・朝鮮人? 在日朝鮮人? 在日コリアン? それとも?”, 『コリアン・マアノリテイ研究』, 第3号.

徐龍達, 1981, “近代韓國・朝鮮經濟年表: 韓國・朝鮮論の提唱について”, 『桃山學院大學經濟經營論集』, 23(3).

原尻英樹, 1994, 『在日朝鮮人の生活世界』, 弘文堂.

Hutnik, N., 1986, "Patterns of ethnic minority identification and modes of social adapt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9(2).

<Abstract>

A Study on Social Adaptation and Identity of the Korean-Japanese

Yoon, Il-Seong

This paper deals with three subjects. First, it examines the names of the Korean-Japanese. Considering three names which are *jainichi chosensin*, *jainich gangoku chosenyin*, and *jainichi korean*, I put emphasis on the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usage of the names. Second, this paper explores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Japanese. How has the identity of the Korean-Japanese changed from the first generation to the third generation? Third, it also develops the typology of the identities which the Korean-Japanese have. They are 'symbiotic', 'fatherland', 'individual', and 'naturalized' identities. This paper takes the form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dentities into consideration.

These three subjects are examined not only in terms of conceptual discussions, but also in terms of empirical ones based on a social survey of 133 Korean-Japanese who lives in Osaka and Kobe in Japan. Analyzing the survey data, this paper suggests the varying characteristics of the identities which different generations of the Korean-Japanese have.

Key words: Korean-Japanese, Identity, Social Adaptation, Typology of Identity.